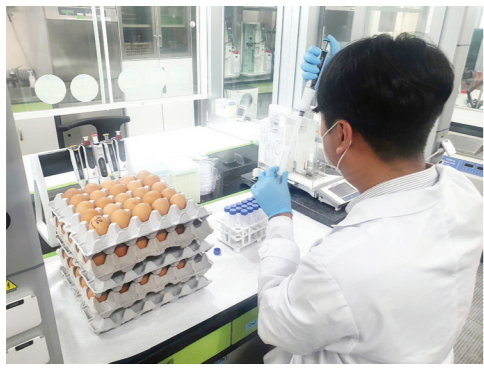


# 전남산 계란 안전성 입증...11월까지 '무작위 수거검사'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에서 이뤄지는 계란 안전성 검사

## 전남도, 도내 마트·식용란 수집업체 대상 안전성 검사 “전남산 계란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안전성 확보에 총력”

전남도가 전남산 계란의 식품 안전성 확보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높인다. 전남도는 소비자들이 전남산 계란을 안심하고 구매하도록 11월까지 도내 계란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무작위 수거 안전성 검사'를 한다고 10월 31일 밝혔다.

검사에는 22개 시·군,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이 투입된다. 이들은 하나마트 12곳, 대형마트 24곳, 식용란 선별포장업체 54곳, 식용란 수집판매업소 185곳 등 총 275곳 가운데 무작위로 50곳을 선정해 판매 중인 계란을 유상 수거하고 위

생 점검을 한다. 수거한 계란은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에서 살충제 34종과 항생제 22종의 기준치 초과 여부를 검사한다. 검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계란은 전량 폐기하고 위생 상태가 불량한 업소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또 기준치를 초과한 계란을 생산한 농장을 추적 조사해 추가 검사 등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특별관리한다. 그간 전남도는 산란계 농장 110곳에서 생산한 계란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확인했다. 전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산란계 농장과 계란 유통업체에 대한 촘촘한 안전관리로 2020년부터 3년 연속 전남산 계란의 안전성을 확인했다”며 “전국 소비자들이 전남산 계란을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안전성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해에도 산란계 농장 105호와 시중 판매업체 18곳에 대해 계란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으로 판정돼 전남산 계란의 우수성을 확인했다. 김재환기자

## ‘이태원 참사 애도’ 한전, 2022 빅스포 차분하게 진행한다

### 환영리셉션·경품추첨·콘서트·버스킹 공연 전면 취소

한국전력이 정부의 ‘이태원 사고’ 국가에 도기간 운영 취지에 맞춰 ‘빛가람 국제전력 기술 엑스포 2022(빅스포·BIXPO 2022)’ 일부 행사를 폐지·축소 조정했다. 한전은 오는 11월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2 빅스포’ 행사를 기술교류의 장으로 경건하고 차분하게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8회차를 맞는 빅스포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Carbon Neutrality & Energy Security)’를 주제로 컨퍼런스, 신기술전시회, 발명특허대전, 일자리박람회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이태원 사고 국민애도기간 운영에 따라, 2일 개막식 환영리셉션을 폐지하고 식전에 추모 영상을 송출하기로 했다. 신기술전시회 개관식은 테이프커팅을 폐

지하고 내빈(VIP) 행사장 투어를 축소 조정했다. 4일 폐막식에 예정된 경품추첨도 폐지하고 각 전시장에서도 흥미 위주의 경품이벤트를 열지 않기로 했다. 희망·사랑·나눔콘서트를 비롯해 지역 특산물장터, 버스킹 공연도 전면 취소했다. 한전은 국가 애도 기간 중 한전 홈페이지와 공식 소셜미디어를 통해 애도 메시지를 게시하고 희생자 추모 분위기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슬비기자



## 전남도 동부지역본부, 청렴도 향상·조직문화 개선 워크숍 개최

전남도 동부지역본부(본부장 서은수)는 최근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에 등록된 전 나주부시장 이광형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청렴도 향상 및 조직문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내부 구성원 간 청렴 공감대를 형성하고 조직 내 청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개최한 이번 워크숍은 ‘정렴! 공직자의 생존전략’이라는 주제로 최근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청렴한 공직관을 세우는 계기가 됐다.

또한, 전문 강사의 청렴 강의와 더불어 고려 후기 승평(지금의 순천) 부사 최석의 청백리 정신을 기리는 ‘팔마탑(순천 죽도봉 공원 내)’을 견학하는 등 예로부터 이어져온 선조들의 청렴정신을 되새기는 시간도 가졌다. 광영호 운영지원과장은 “앞으로 청렴도 향상 워크숍 개최를 정례화 하는 한편, 직원 간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동부지역본부 김승호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캠페인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지사장 김병선)는 최근 순천시 서면 운평리 용당마을을 찾아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지사 직원 및 마을 주민 30명이 참여하여 매년 농작재 사용 후 발생한 영농폐기물 등이 누적 방치되어 경관을 해치거나 불법 소각되어 화재발생 및 대기오염 유발에 따른 아름답고 살기 좋은 농촌에 대한 국민적 기대 및 깨끗한 환경 속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대한 소비자 요구 증가를 충족하고자 실시하였다.

### 지사 직원 및 마을 주민 30명 참여 영농폐기물 등 정비



주민들은 “바쁜 시기에 아름다운 마을 환경 조성을 위해 정비 활동에 애써주어서 고맙다.”고 말했다. 김병선 지사장은 “공사 직원들이 힘을 보태

어 우리 농촌이 깨끗하고 아름답게 유지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촌 환경에 관심을 갖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 광주 광산구, 평동 군사격장 소음조사 주민설명회

광주 광산구는 11월2일 오후 2시 평동 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에 대해 육군교육사령부 주관으로 평동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지난 6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

음보상법)’에 따라 두 차례 실시한 소음영향도 조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평동 포사격장 인근 주민과 소음측정을 담당할 용역사, 상무대 포병학교, 육군교육사령부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임형택기자

본사인사

**김덕순**  
지역사회부  
보성지역차장  
의원면직  
2022년 11월 1일

한국어문진흥재단  
Korea Prose Foundation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여가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위라벨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 이해의심에서 재인한 슬로컨입니다.

www.nhis.or.kr

“건강보험, 월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음으로써,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급여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월보험료 납부 104,062원  
1.77배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구분	보험료부담액	급여액	비율
5분위 고소득층	240,833원	125,531원	1.1배
4분위	125,531원	79,147원	1.7배
3분위	79,147원	48,103원	2.1배
2분위	48,103원	26,697원	2.7배
1분위 저소득층	26,697원	-	5.3배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총합 129

국민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고객센터 1577-1000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